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CEO REPORT



MONTHLY CEO

다국적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주)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JULY 2025 Vol.244



CEO Report 웹진

발행일 2025년 7월 1일 통권 244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서경란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461

기획 IBK경제연구소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SPECIAL REPORT

- 02 **THEME**
2025년 하반기 경제 전망
- 04 **SPECIAL ①**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여파
글로벌 무역-투자 위축 우려
- 08 **SPECIAL ②**
中企가 주목해야 할 변곡점
관세 협상-추경 지원-금리
- 12 **TABLE TALK**
수출 기업들 '체력 키우기' 절실
기술 자립도-생산성 높여야 기회



ECONOMY

- 18 **MONTHLY CEO**
다국적 의료가기 수입제조업
(주)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
- 24 **START-UP**
(주)심투리얼, (주)비달소닉, 아이스링커(주),
나눔비타민, 주식회사 위플로
- 28 **MARKETING**
중고의 반란, 중고 시장의 매력
- 32 **TAX**
법인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어떻게 처리하나
- 34 **IBK EXPLORING**
제75회 희망중소기업포럼 개최
- 38 **GLOBAL ECONOMY**
지금 세계는:
- 40 **INDUSTRY TREND**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CULTURE

- 42 **ESSAY**
인정받고 싶은 욕망
- 44 **LAW**
'사용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 46 **WORK OUT**
여름 운동, 준비가 반이다
- 48 **IBK SUPPORT**
IBK ESG 정밀진단 시스템



2025년 하반기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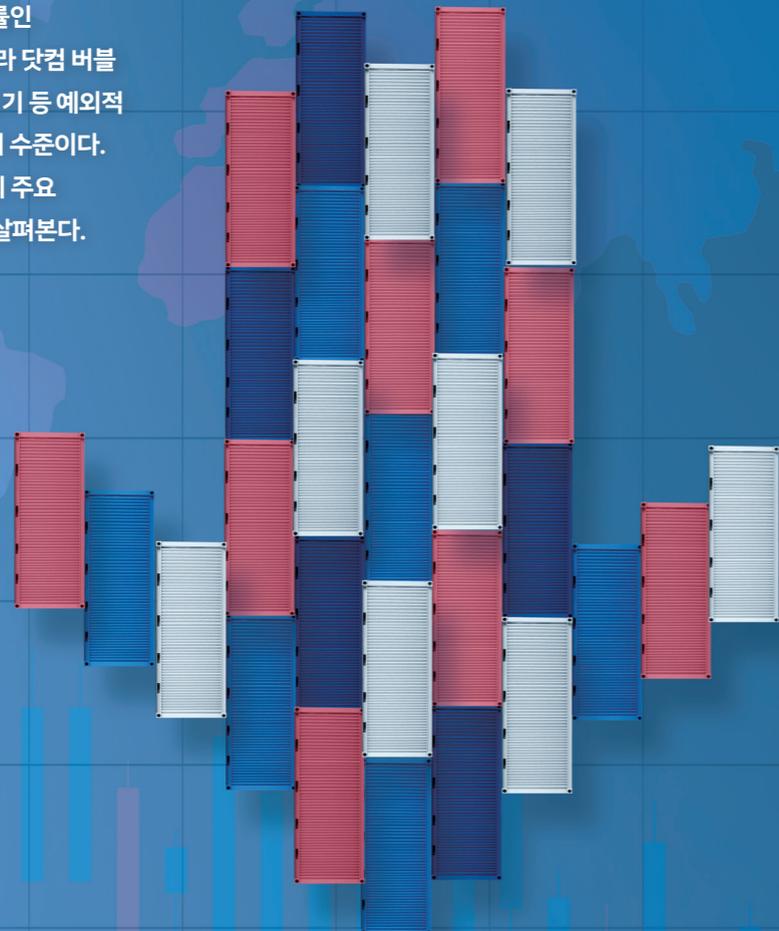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에 있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중국의 경기 반등 여부, 유럽의 에너지 전환 속도 등 주요 변수들이 얽히면서 글로벌 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하반기를 맞이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또 중소기업과 산업 현장은 어떤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는가. 2025년 하반기 경제의 실마리를 모색해본다.

- 02 THEME
2025년 하반기 경제 전망
- 04 SPECIAL ①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여파
글로벌 무역-투자 위축 우려
- 08 SPECIAL ②
중소가 주목해야 할 변곡점
관세 협상-추경 지원-금리
- 12 TABLE TALK
수출 기업들 '체력 키우기' 절실
기술 자립도-생산성 높여야 기회

글. 윤상하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여파 글로벌 무역-투자 위축 우려

2025년 세계 경제는 뚜렷한 저성장 기조에 진입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5년 글로벌 GDP 성장률을 2.7%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성장률인 약 3.2%보다 0.5%p 낮을 뿐 아니라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예외적 시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주요 리스크들과 각국 경제 성장 전망을 살펴본다.



Profile. 윤상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전 LG경제연구원 이코노미스트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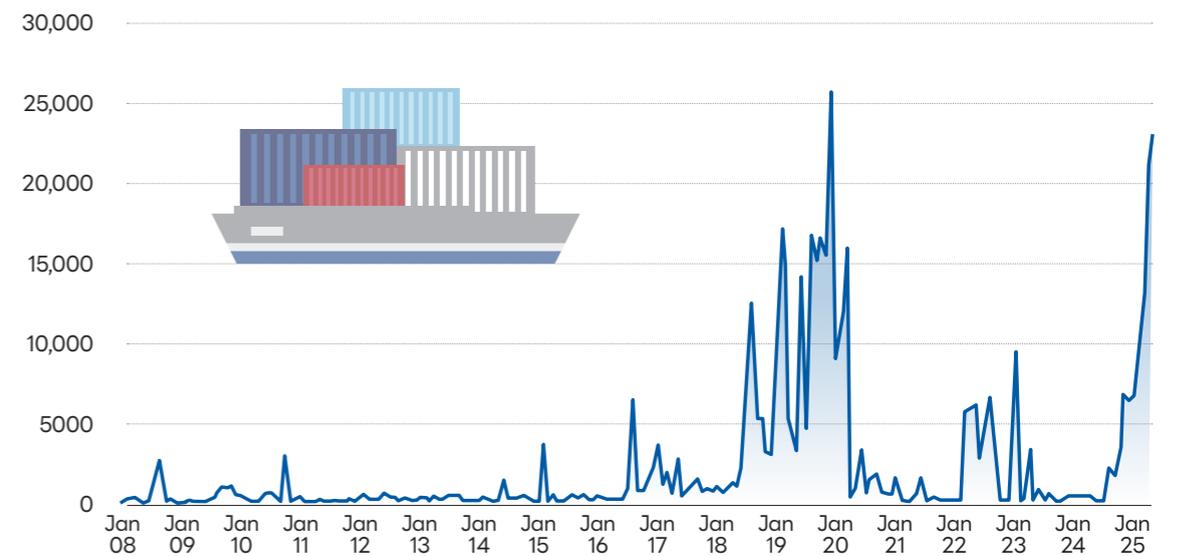
2025년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갈등 심화, 인플레이션 재발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역자산효과에 따른 금융 불안과 부채 리스크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높은 관세 장벽을 재도입·확대하거나 무역 관련 정책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높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세계 교역 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을 가져와 향후 글로벌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한때 지정 국면을 보이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공급망 차질도 재발할 위험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향후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정책 방향 예측을 어렵게 만

들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 셋째,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가 현실화될 위험이다. 주가와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의 부가 축소되고 소비가 위축돼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동시에 팬데믹 기간 중 누적된 부채 문제도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큰 부담이다.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리스크 요인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를 예상보다 더욱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 주체들은 거시 환경의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전망

2025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3%에 그쳐 전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



자료 World Uncertainty Index

년(2.8%) 대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세계 경제 둔화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은 새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으로 인한 경기 심리 악화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대외 무역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종 양자 협상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 재격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통상 불확실성이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그동안 미국 경제를 이끈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둔화가 감지되고 있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수입 물가 상승 조짐이 보이며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향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투자를 연기할 수 있다. 여기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연준이 쉽게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아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당분간 유지된다면 이자 비용 부담 증가는 소비·투자에 추가적인 제약이 된다. 요컨대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자금경색이 맞물려 미국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성장에의 하방 요인이다.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제는 2025년에 0.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사실상 정체에 가까운 낮은 성장으로 부진의 주요 원인은 무역·투자 위축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대미 수출 및 교역이 위축되고 기업 심리가 얼어붙었으며, 대내적으로는 EU 회원국 간 갈등과 일부 국가에서의 극우 성향 정부 등장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런 내부 혼선은 투자 환경을 해치고 대외 리스크는 유럽 수출 감소로 이어져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지속으로 실질소득이 회복되면 민간 소비가 다소 늘어날 여지는 존재한

다. 그럼에도 투자와 수출 부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별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이 저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독일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아 미국발 관세 영향에 취약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국내 정치 불안과 외부 수요 둔화로 투자가 활력을 잃은 모습이다. 반면 스페인은 대미 무역 비중이 낮아 미 관세 충격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 관광 호조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는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은 2025년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내외'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적인 성과는 그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전 등 내구재 교체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첨단 제조업 투자 장려 등 다양한 내수 부양책을 시행 중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적자율을 4%까지 높이고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인민은행도 기준금리와 기준율 인하 등 통화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4.1% 성장이라는 수치는 중국 정부 목표에 비해 낮는데 이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구조적 부담이 남아 있고 지방정부 재정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나아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상존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압박이 지속돼 수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관세 장벽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이고 세계 경기 둔화까지 겹쳐 무역이 중국 성장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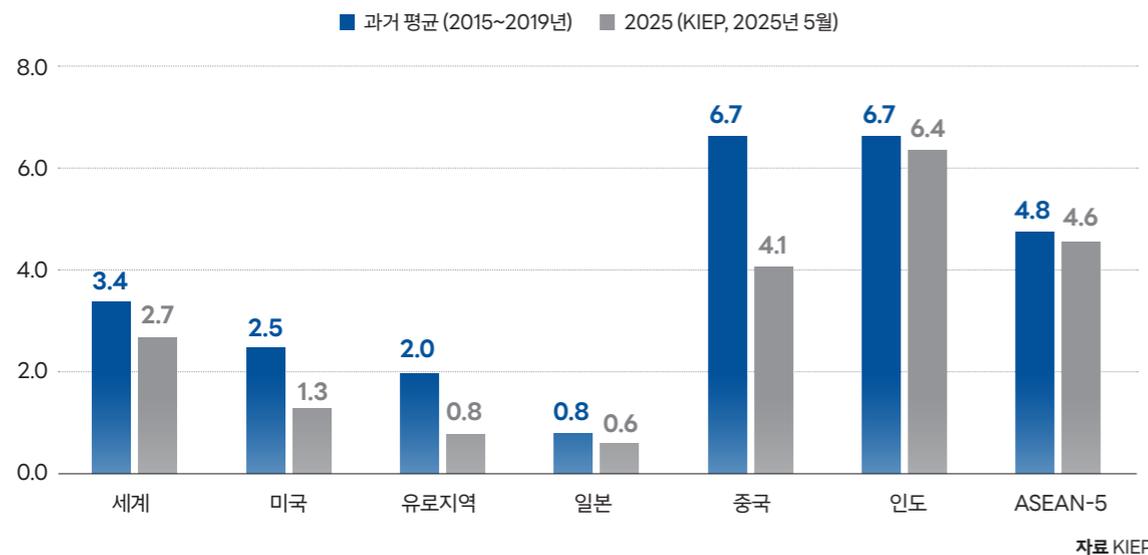
합하면 중국은 정부 부양책으로 내수는 받쳐주지만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국면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은 2025년 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진 수치지만 완만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 수요 부진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으나 내수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국가별로 다소 상황 차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신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민간 소비 둔화와 수출 부진 우려도 있어 정부 부양 효과와 민간 둔화가 상쇄되며 완만한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는 완화적 통화정책 속에 임금 인상과 소비 회복으로 내수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년간 진행된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가시화돼 투자 분야에도 긍정적이다. 다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관세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태국은 경기부양 노력에도 제조업 수출 부진과 관광 회복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베트남은 세계 전자제품 수요 둔화로 제조업 수출 증가세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하고 '차이나+1' 전략의 수혜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대미 수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 미·중 갈등 격화 시 취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세안 5개국은 4%대 중반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중국 경기 둔화 파급효과 등이 지역 내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어 각국 정책 대응에 따라 성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2025년과 코로나19 이전 평균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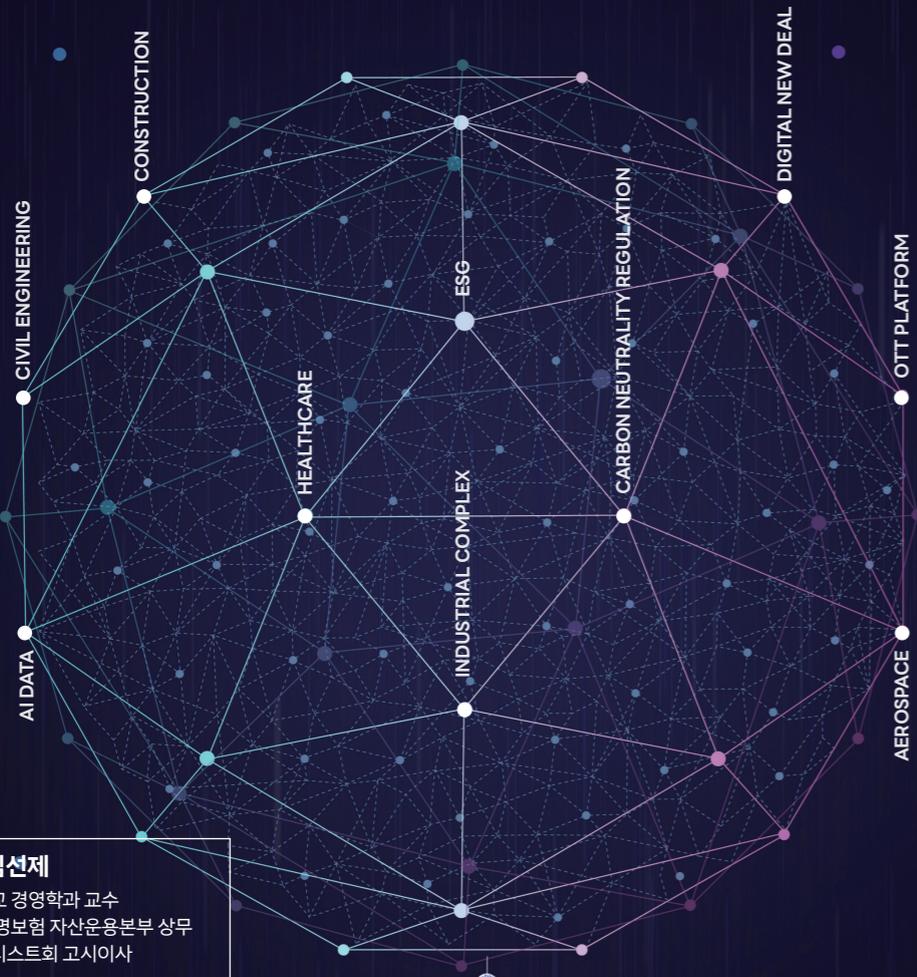
단위 %



글. 김선제

중소가 주목해야 할 변곡점 관세 협상-추경 지원-금리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기업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한편, 보호무역을 이행하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와 품목별 관세율 수준은 산업별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수출입 동향, 내수시장 비중이 큰 건설과 유통업 추이 등 하반기 산업별 위험 요소와 지형 변화 요인을 분석한 후 경기 흐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Profile. 김선제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전 한화생명보험 자산운용본부 상무
 - 한국애널리스트회 고시이사

하반기 산업별 유망 및 위험 분석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출이다. 중소기업도 장기 성장을 위해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 자유무역에서 경영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였다. 부품과 제품을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해 시장성이 좋은 국가에 판매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으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보호무역은 자국 우선권을 강요한다. 미국이 'America First'를 내세워 관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대처 상황에 따라 기업 실적이 좌우된다.

주요 품목별 수출입은 기계, 전기통신기기의 2024년 수출은 각각 10.5%, 23.9% 증가했으나 철강, 연료 및 운할유 등 다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정체돼 있거나 감소했다. 반면 2025년 4월 수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감소해 미국 관세정책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입은 2024년 수출 증가율이 미국 10.4%, 중국 6.6%, 일본

2.1%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높아져 미국 정부의 관세율 부과 수준이 높다면 하반기 이후 수출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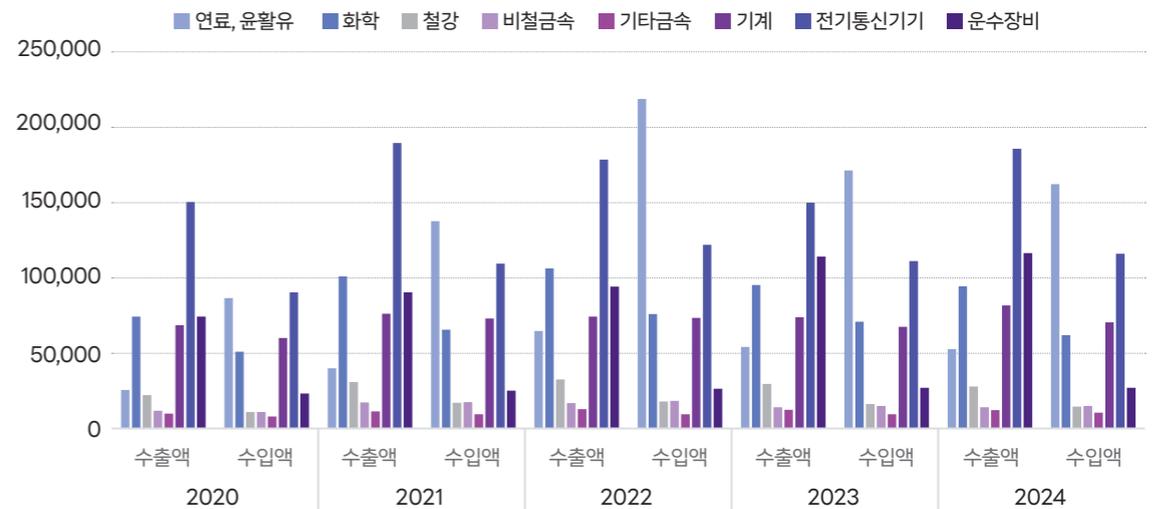
건설업 경기를 분석하는 국내 건설 총수주액은 2024년 10.9% 상승했으나 토목 수주액은 -1.8%를 기록해 토목업의 어려움이 컸다. 2025년 4월까지 국내 건설 총수주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25.2%로 추정되고 공공 부문 성장률은 -43.9%, 토목 성장률은 -47.9%로 추정돼 건설업 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지형 변화 요인

트럼프 정부는 10% 기준 관세 및 품목별·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8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본격 개시된다. 품목별 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6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철강 파생제품 관세를 50%로

주요 품목별 수출입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상하면서 이미 발효된 품목별 관세도 안심할 수 없다. 제3국을 경유해서 수출되는 중간재도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다.

협상 타결 시점과 내용에 따라 산업별로 직접 수출 및 우회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율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 5월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32.0% 줄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하반기 이후 관세 영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간 협상에서 상호관세 인하와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 인상을 주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산업별 육성 정책, 추경예산 규모와 지원 분야가 변곡점이다. 기준금리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1%로 예상돼 추가로 인하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추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주식시장은 밸류업 추진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대폭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3,000p를 넘어설 정도로 상승했다. 채권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추경예산에 영향을 받는다. 재정지출 확대로 시중자금이 늘어나면 단기금리는 하락하지만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

장기금리는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를 저해하므로 추경 규모와 금리 추세를 주시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업 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투기자본을 유입시켜 주거 안정을 저해하므로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기 흐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규모의 경제다. 생산량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둘째, 기술 진보이다. 기술이 향상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해 고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자본 투입과 신기술 도입이 결합해야 하며 종업원의 지식 능력 확대와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가 늘어나야 한다.

미래 기술 트렌드를 산업에 접목해야 한다. 미래 산업은 생성형 AI, 다기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인간과 기

국내 건설 수주액 연도별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1~4
총수주액 (공공+민간)	216,036	176,427	195,688	48,776
공공부문	36,619	44,254	50,386	9,428
민간부문	176,520	126,091	140,659	39,298
건축	167,740	116,586	136,947	38,579
토목	48,296	59,841	58,740	10,198

자료 한국은행

국내 산업별 육성 정책



자료 2025 대통령선거공약집

계의 시너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며 IoT는 다양한 기기가 상호 연결돼 실시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와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대기업과 직접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중소기업은 틈새시장을 노려야 하며 대기업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모든 원자재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부품업체나 협력업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납품하는 동반자 시스템을 유지해야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 경영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해야 한다.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손실이거나 영업이익으로 매출이자도 못 갚았다. 소비위축, 건설경기 부진으로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지급이자)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40.9%다. 기업 규모나 매출액 규모 같은 외형 위주 경영을 지양하고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안정성 있는 재무 상태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것도 대응 전략 중 하나다.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면 경기 불황을 견딜 수 있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이 우량한 기업은 100% 미만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차입금 조달에 의존한 레버리지 경영을 유지하지만 차입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재무 방침을 실시하면 지급이자가 감소해서 수익성도 향상되고 재무 상태도 개선될 수 있다. 📈

수출 기업들 '체력 키우기' 절실 기술 자립도-생산성 높여야 기회

2025년 새해 시작은 어쩐지 어느 해보다 다소 어두웠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2025년 1월 20일
정식 출범했다. 그 가운데 국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기만 했다. 하반기에 접어든 2025년 지금 이때, 전문가 3인이 모여 과연
국내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을지 견해를 나눴다.



황용식 진행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추동훈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좌담 내용은 좌장 및 패널의 개인 의견이며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하반기 경기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이봉현 하반기 경제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는다. 7월 9일을 시한으로 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국, 유로 등과 미국의 통상 갈등 전개 양상, 건설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의 장기화 여부 등이 하반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추동훈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또는 인하 여부,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 속도, 유럽의 경기 둔화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혔다. 특히 국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6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제조업 기준 70선에 머무르며 심리적 위축이 확연하다. 건설 및 제조 중심의 투자 부진과 내수 회복 지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희 대외 변수가 문제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이어 최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중동 정세로 인해 유가 인상 등의 악재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가 맞물리고 있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겠나.

이봉현 WGBI 편입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장기화하는 효과가 있어 과거 IMF와 같은 급격한 외자 유출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채권시장의 안정성과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우리 국채 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WGBI 편입만으로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겠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

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구조적 문제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동훈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는 단기 이벤트로 상쇄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 중심의 전략이 절실하다.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등의 기술을 통한 1인당 생산성 향상이 해법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 고령 인력 재교육 및 재배치 정책,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같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의 향후 방향성과 성장 회복에 중대한 변수령이 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품목의 대미 수출 여건이 크게 달라지겠다.



이정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 WGBI 편입에 따른 한국 국채의 평가 절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구문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잠재 경쟁력 인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단기적인 생산성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가.

이봉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0.25% 내렸다. 불과 반년 새 기준금리가 1% 낮아진 것. 특히 6월 3일 출범한 새 정부 역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는다. 우선 대선 전에 확정된 13조8,000억 원에 더해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원하는 것을 포함, 20조 원 플러스알파 추경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추동훈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단순한 수치 하향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고착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내수와 수출에서 동시다발적 위기가 발생할 때 경제의 내부 근육이 부실할 경우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위기 확대를 막기 위해선 재고지수, 기업실사지수 등 선행지표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이 ‘내부 체력 키우기’의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 재정 건전성과 민간 활력의 균형 회복 없이는 위기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이 ‘내부 체력 키우기’의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 재정 건전성과 민간 활력의 균형 회복 없이는 위기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정희 내수경기 부진에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성장도 둔화하면서 올해 경기 전망이 어둡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반기 경기는 결국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지금의 경기 전망치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하반기 핵심 지표 및 이슈는 무엇인가.

이봉현 7월 9일로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정해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의 향후 방향성

과 성장 회복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품목의 대미 수출 여건이 크게 달라지겠다. 협상에 실패해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오면 수출 급감 및 성장률 하락, 제조업 실적 악화, 고용 충격,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미국이 대폭적인 양보와 안보 관련 지출 확대 등 부가적인 것을 요구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나 국채금리 등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동훈 미국 기준금리, 이는 한국 기준금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기준점이자 환율, 자본 유출입, 부동산 시장,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소비 심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0%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 중반 이후 인하 기대가 존재하지만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탄탄해 단기간에 급락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극도로 민감하다. 하반기 금리 변동성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정희 당장 7월 초까지 유예된 상호관세에 잘 대응해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하반기에는 침체된 소비와 투자심리를 반등시킬 수 있는 새 정부의 국가 운용과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느냐가 핵심 사안이다.

그렇다면 국내 수출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추동훈 직접 대응이 아닌 ‘리스크 회피’,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수출 다변화가 핵심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와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하반기에는 침체된 소비와 투자심리를 반등시킬 수 있는 새 정부의 국가 운용과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느냐가 핵심 사안이다.



야 한다. 생산기지의 지리적 분산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대관조직의 전략적 강화를 통해 미국 정치권 및 산업계와의 소통 통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당시 자동차 관세 위협을 되돌아보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기업들도 자체 로비력과 정책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하고 필요하다면 업종별 연합 대응도 모색해야겠다.

이봉현 추동훈 기자 의견에 덧붙이겠다. 무엇보다 관세 장벽을 뚫고 미국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품목의 경우 소재·부품 국산화, R&D 투자 확대,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만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전기차 수요 증가로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국내 중소기업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나.

추동훈 반도체 산업은 성장 가능하지만, 2차전지는 ‘전기차 캐즘’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과잉 공급 리스크 또한 마주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어렵겠다. 중소기업들은 ‘니치 마켓 공략’과 ‘기술 특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완성품이 아닌 소재·장비·공정 기술에서 차별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봉현 대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 공동 R&D,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 기술 이전 등으로 첨단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국적 공급처 발굴, 해외 광물자원 공동 투자, 정부-민간 합동 구매협약체에 참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정희 정부는 R&D 지원과 투자 환경을 마련해 벤처 스타트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 친화적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하반기 경제 전망으로 가장 경계하거나 낙관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봉현 자영업자의 부채가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자영업은 현재 코로나19, IMF보다 어렵다고 한다. 이에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 자영업에서 부실화된 대출이 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부실대출 규모는 4조2,5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다. 2019년 2분기 이후 6년여 만에 최대치이다.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69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대선 이후 정부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내수 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였음에도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 정부가 추경 규모를 늘려 편성하고 대미 통상 이슈에도 본격 대응하는 등 역할을 찾아가고 있으므로 차츰 경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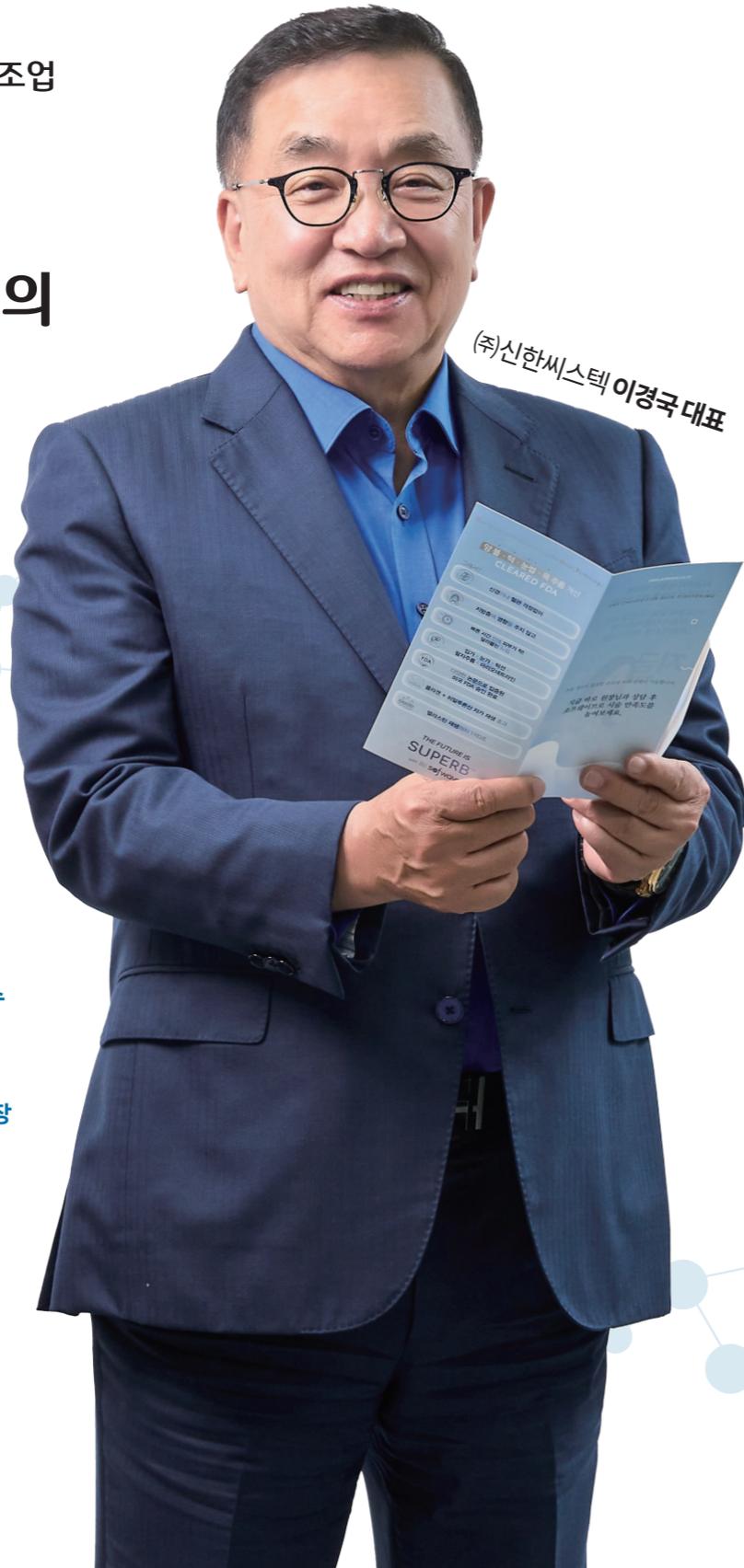
추동훈 가장 경계하는 것은 ‘글로벌 거시경제 리스크’다. 미·중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정,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균형 등의 위험 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환율, 원자재 가격에 변동성을 초래하며 한국 경제를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정치 리스크의 해소’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정치적 안정은 위기 시 정부가 시장을 설득하고 견인하는 힘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결국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이정희 현재 국민 불안과 국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심리가 침체됐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국민 불안정과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침체된 소비와 투자심리를 어떻게,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 전망이 달라질 것이다. 📈

다국적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주)신한씨스텍

업계 표준, 의료기기산업의 38년 산증인

(주)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



(주)신한씨스텍을 설명하려면 빠질 수 없는 수식어 ‘국내 최초’. 이제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국내 독점 총판권, 프리미엄 의료기기 시장 선도 등 의료기기산업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은 (주)신한씨스텍의 이경국 대표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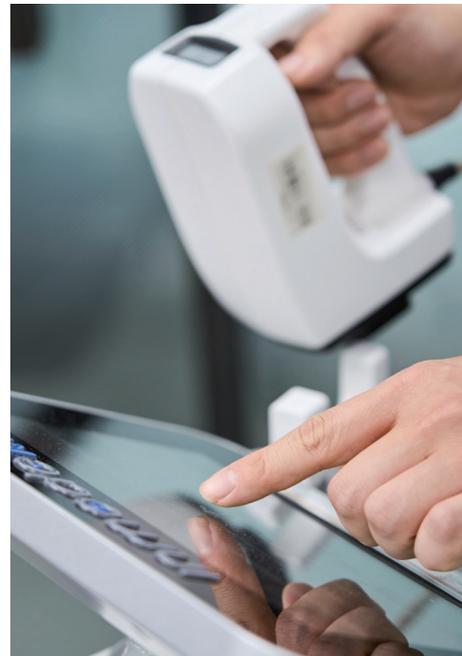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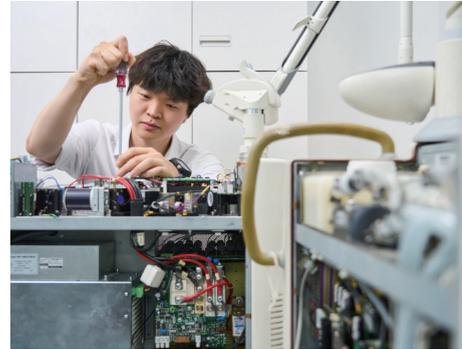
첫 출발, 인식 전환과 신기술 전파

4차 산업혁명에는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의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의료기기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34년까지 1,56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주)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 가능성을 일찌감치 예상했다. 1987년 다국적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체 (주)신한씨스텍을 설립해 국내 의료 시장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지금까지도 업계 선두 주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신한씨스텍은 국내 최초로 레이저 의료 장비를 도입했어요. 청진기 외에는 의료 장비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죠.” 이경국 대표가 그간 국내 최초로 의료 신기술들을 도입하게 된 건 ‘더 이상 청진기만으로 진단하는 시대가 아닌 초음파를 통해 눈으로 보면서 진단하는 시대’, ‘이젠 수술 중 레이저를 사용해 출혈 없는 무혈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어느 외국 기업의 설명회가 시작이었다. 1980년 레이저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국내에서 외국 서적들을 구해 독학했고 수많은 병원을 오가며 의료진을 설득했다. 전문 의료진도 “복부 절개를 위해 레이저를 쓰면 장기가 절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국내에서는 레이저 치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지만 이경국 대표는 당시 건설업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같이 의료기기산업 발달을 확신하며 의료진의 인식 전환과 신기술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

‘오늘의 기술이 미래의 의료가 된다(Today’s technology is tomorrow’s medicine)’라는 (주)신한씨스텍의 슬로건은 창립 초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다. 1990년대 IMF 위기에도 이경국 대표는 구조조정 없이 당시 35명이었던 모든 임직원과 끝까지 함께해 위기





66

(주)신한씨스텍은
국내 최초로 레이저
의료 장비를 도입했어요.
청진기 외에는 의료 장비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죠.

99

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았다. IMF로 달러가 급등하는 걸 역이용한 것이다. 많은 대학병원에서 계약이 돼 있던 수많은 레이저, 초음파 기기가 취소되자 수출을 시작했다. 이처럼 (주)신한씨스텍은 혁신적인 전략으로 IMF를 넘기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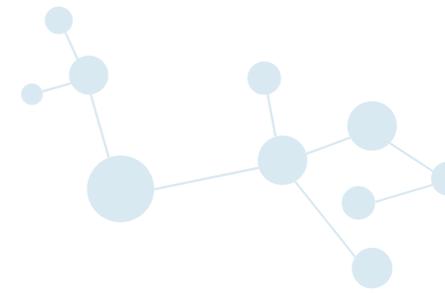
(주)신한씨스텍은 4차 산업혁명 역시 새로운 기회로 맞이했다. 이경국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산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 혁신을 기업 전략의 핵심에 두겠다는 철학이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공략 시장 및 핵심 전략을 탄탄히

과거 에스테틱에만 사용되던 레이저 기술은 단순히 피부 질환을 넘어 외과나 통증 치료까지 확장되는 등 기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기술은 장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환자의 삶에 직접 닿는 순간, 진짜 가치를 찾게 되죠.” (주)신한씨스텍은 에스테틱, 초음파, 고주파, 일반외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고객의 니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스킨부스터’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주)신한씨스텍의 주요 제품으로는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는 Inmode(반도체레이저수술기), Inmode RF(범용전기수술기)와 Fotona(Star Walker, XS Dynamis, AvalancheLase)레이저를 비롯해 최근 인기 상승세 궤도를 타고 있는 리프팅 장비 Sofwave(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가 있다. 이는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기존 HIFU(초음파)와는 다른 Synchronous Ultrasound Parallel Beam(SUPERB™) 독자적인 기술로 7개의 평행한 초음파 열 기동 빔을 동시에 조사해 피부 진피층 1.5mm를 정확히 겨냥한다. Sofwave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재생을 촉진해 피부 주름 개선을 도와 단기간에 피부 탄력에 효과를 나타내는 장비로 20대 여성은 물론 60~70대 여성도 많이 찾는다. 이처럼 (주)신한씨스텍은 업그레이드된 제품군과 시술 솔루션 기반으로 스킨부스터 시장을 핵심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주)신한씨스텍 두 제품을 비롯해 Fotona(엔디아그레이저수술기, 기타레이저수술기)·Biojet(2등급 의료영상검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System 등 세계적으로 입증된 장비들의 국내 독점 총판권을 확보해 프리미



BK Specto Ultrasound System Type2300





SHIN HAN SYSTEM
(주)신한씨스텍
 SHIN HAN SYSTEM
 Today's technology is Tomorrow's medicine

업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주)신한씨스텍은 해외 기업 제품의 독점 총판권 확보에 앞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친다. 무분별한 장비 선택은 지양하고 해당 제품의 기술이 실제 임상에서 검증됐는지, 기술적으로 타 제품 및 기술과 어떤 차별화를 지녔는지 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내 의료계 현장에서 수용이 어렵다면 선택하지 않아요.” 이경국 대표는 국내 의료 시장과의 적합성과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시장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제품군별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고객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기술에 사람을 더하고
현장과 함께 성장**

“의료기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신뢰의 산업이죠.” 이경국 대표가 말했다. 이경국 대표는 (주)신한씨스텍 창립 이후 줄곧 ‘기술에 사람을 더하는 기업’, ‘현장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경영 철학으로 삼았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의료진과 환자의 실제 경험,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이경국 대표는 (주)신한씨스텍을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사로 한계 짓지 않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의료기기 플랫폼 기업으로 이끌고 있다. 분기별 워크숍, 세미나 론칭, 국내외 전시회 및 학회 참석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현장을 통해 의료진의 실제 사용 경험과 피드백을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내부 조직과 파트너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곧 고객 신뢰도 제고와 신규 매출 창출이라는 성과 달성에 한몫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신한씨스텍의 세미나 및 학회 개최로 신규 고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초 레이저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의료계는 물론 의료기기 산업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주)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는 K-뷰티가 세계를 석권한 것과 같이 ‘K-의료’가 글로벌 의료 환경을 혁신하는 미래형 리더로 도약하기를 꿈꾸며 지금도 (주)신한씨스텍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



START-UP

IBK 창공 육성기업

(주)심투리얼 · (주)비달소닉 · 아이스링크(주) · 나눔비타민 · 주식회사 위플로

합성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선제 대응

(주)심투리얼 전다형 대표

- ◎ 주요 기술 위성·항공 합성데이터, 실시간 AI 시뮬레이션 등
- ◎ 주요 제품 SIM2DATA, SIM2SAT, SIM2World
- ◎ 홈페이지 www.sim2real.co.kr

위성과 항공 영상 판독은 단순한 이미지 분석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주)심투리얼이 있다. (주)심투리얼은 우주항공 분야 위성영상 데이터 생성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전다형 대표가 2022년 7월에 설립했다. 전다형 대표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12년간 대한항공기술연구원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심투리얼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통해 위성 및 항공 영상 판독의 정확도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주)심투리얼은 ‘Simulation to Real’의 줄임말로써 시뮬레이션 세상의 창의력으로 실제 세상의 혁신을 만들자는 비전이 담긴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

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과거 위성 및 항공 영상 판독 방식에 (주)심투리얼만의 창의력과 기술을 더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분야에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주)심투리얼의 핵심 기술은 독자적인 합성 데이터 생성 및 시뮬레이션 기술인 ‘SIM2SAT’이다. 이 기술은 위성영상의 기하, 촬영 환경, 표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실제와 유사한 군 타깃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물리 기반 시계열 시뮬레이션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위성영상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고정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AI 판독 정확도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향상한 mAP 70% 이상을 기록했다. (주)심투리얼은 국방, 기후,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 3D 디지털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국내외 특허등록과 학술논문 발표를 통해 기술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SIM2War, SIM2World로 이어지는 단계적 플랫폼 확장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다형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타입의 기후변화 데이터와 수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2025년 말에 상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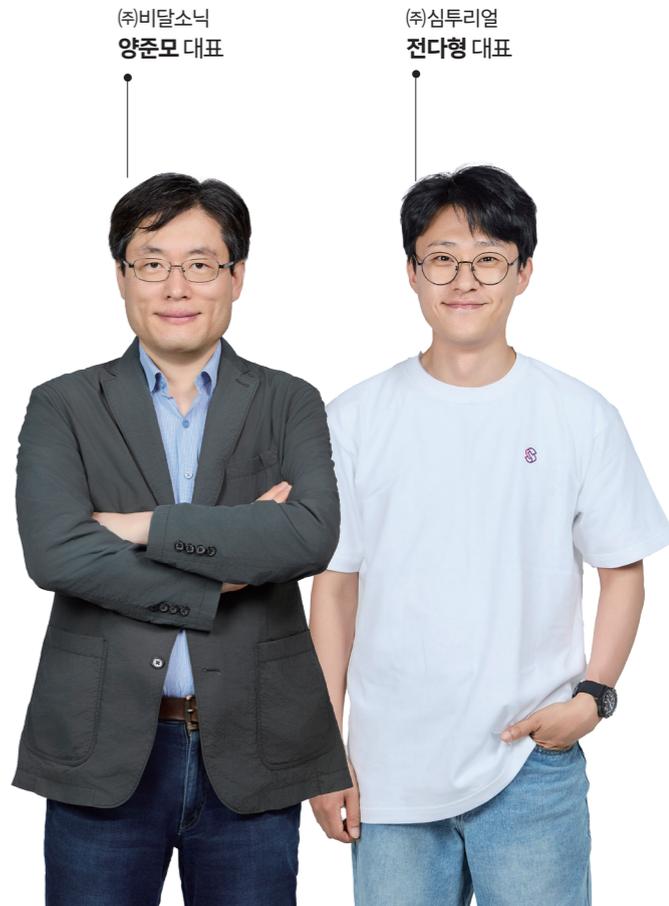
광음향 기술로 여는 의료 혁신

(주)비달소닉 양준모 대표

- ◎ 주요 기술 광음향·초음파 융합 내시경 기술, 미니 프로브 기술 등
- ◎ 주요 제품 내시경 시스템, 영상 프로브, 초음파 센서 및 초소형 광학 모듈
- ◎ 홈페이지 -

2023년 8월 1일 설립된 (주)비달소닉은 빛과 소리의 파동을 이용한 광음향 기술을 기존의 초음파 기술과 결합해 내시경 등의 최소 침습적 영상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광음향·초음파 융합 내시경을 개발해 의료 영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X선, CT, MRI, 초음파 등 기존의 암 진단 영상 기술은 방사선 노출, 조영제 부작용, 정밀 진단 한계, 고비용, 낮은 대조도 및 해상도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양준모 대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주)비달소닉을 설립했다. 기존의 비디오 내시경 기술, 초음파 내시경(EUS) 기술은 모세혈관, 혈관상을 보는 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다. 이에 (주)비달소닉은 기존 초음파 영상 능력을 유지하면서 광음향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임상 내시경과의 호환으로, 필요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광음향·초음파 융합 내시경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암 조직이 생성하는 신생 혈관 광보를 바탕으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광음향·초음파 융합 기술로 내시경과 같은 시스템은 물론 프로브와 같은 소모품 등 관련 요소 기술들의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비달소닉만의 기술은 겸자공 호환성을 최초로 증명했으며, 담도 혈관상 최초 획득, 방광 벽 모세혈관상 최초 가시화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 특히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 해외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기술, 해상도, 가격 면에서 월등한 수준을 보인다. 초음파 센서 및 부분 모듈, 연구용 영상 장비, 카테터, 내시경 등 최소 침습적 영상 기기 및 중재적 의료 기기, 퍼스널 헬스케어 기기로 사업의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주)비달소닉은 2026년 매출 5억 원, 2030년 매출 60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식약처 인허가 획득, FDA 승인 완료, 미국 및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주)비달소닉 양준모 대표

(주)심투리얼 전다형 대표

초전도 열전 기술로 일상을 시원하게

아이스링크(주) 김형규 대표

- ◎ 주요 기술 초전도 열전 기술
- ◎ 주요 제품 엘라테라 시리즈, 핸디 쿨6hat, 캠핑·반려동물용 냉각 기기
- ◎ 홈페이지 www.icelinker.com

아이스링크(주)는 열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냉각 기술로 해결하는 휴먼 센터 기술 기업이다. 국내 S사의 C-LAB 제도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S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창업했다. 기후변화로 고온현상이 일상화되며 냉각 기술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아이스링크(주)는 초전도 열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대용 냉각 솔루션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아이스링크(주)는 기존의 얼음, 액화 질소, 드라이아이스처럼 냉동고를 사용하거나 화학적 방식을 통한 전통적인 냉각 방식과 달리 ‘펠티어’라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열을 흡수해서 냉감을 전달하는 형태의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휴대용으로 2분 이내에 최대 -10°C 이하까지 냉각할 수 있다. 이는 통증과 열감 해소에 효과적이다. 특히 특히 13mm 두께, 350g 무게의 소형화된 냉각 모듈은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킨다. 충전 후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필요 없고 물이 흐르지 않아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이스링크(주)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냉각 기기 ‘엘라테라’ 시리즈를 개발해 본 임상에 돌입했다. 휴대용 냉각 기기인 ‘엘라테라’ 시리즈를 통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염증과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활 치료 기기를 양산화할 계획

이다. 현재 아이스링크(주)는 초전도 열전 기술을 통해 여러 분야의 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휴대용 의약품 보관함, 차량용 냉장고 등 30개 Lineup의 제품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과 협업 개발 중이다. 특히 아이스링크(주)는 Medical/Wellness 냉각 제품을 통해 2030년까지 5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로 연결한 기부와 복지

NANUMNAVI

나눔비타민 김하연 대표

- ◎ 주요 기술 AI 기반 기부·복지 매칭 플랫폼, 자동화 SaaS 시스템 등
- ◎ 주요 제품 모바일 바우처 플랫폼, AI 추천 엔진 등
- ◎ 홈페이지 www.nanumnavi.com

나눔비타민은 AI 기반의 기부·복지 플랫폼 기업이다. 김하연 대표는 기부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기업의 ESG 활동이 임직원 및 가맹점과 연결되며, 비영리단체가 쉽게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3년 4월 나눔비타민을 창업했다. 김하연 대표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공공 차원에서의 노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한된 예산 안에서 획기적인 인건비 비용 절감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혜자 입장에서도 디지털 통합 관리 시스템이 없어 채널이 분산돼 수혜자의 만족감은 저하되기만 했다. 김하연 대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풀어낸 AI 기반의 기부·복지 플랫폼 나눔비타민을 개발했다. 나눔비타민의 나눔비타민은 기부와 복지의 전달부터 마무리까지 올인원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 기부금이 수혜자에게 실시간으로 1대1 매칭돼 전달되는 세

계 최초의 양방향 구조를 구현했다. 기부자는 앱에서 기부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수혜자는 자신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바우처 등 공공복지 영역에서도 활용돼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혜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나눔비타민은 AI 추천, 자동 보고, 데이터 기반 ESG 리포트까지 지원하며 기업 CSR과 공공기관의 복지 예산 운용을 혁신하고 있다.

무인 점검 기술로 하늘길 안전 책임

주식회사 위플로 김의정 대표

- ◎ 주요 기술 비접촉식 퓨전센서, 버티컬 AI
- ◎ 주요 제품 미래 모빌리티 검사·점검 플랫폼
- ◎ 홈페이지 www.weflo.ai

한화시스템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분사한 주식회사 위플로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안전한 이동과 진보를 실현하는 비행체 진단 케어 솔루션 기업이다. 미래 모빌리티 점검 기술 스타트업으로 비접촉식 퓨전 센서와 버티컬 AI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과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차세대 모빌리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모빌리티 산업 현장에서 센서 개발과 데이터 분석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모인 주식회사 위플로는 방산혁신기업100프로젝트 선정, 국내 특허등록 20건과 출원 6건, 해외 특허 7건 등 자사 혁신 기술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또한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인화된 정비 시스템을 개발해 국토부 드론 배송 사업, 전기차 제조 현장 등에 솔루션을

공급 중이다. 주식회사 위플로의 기술은 기체에 탑재되거나 인프라에서 설치할 수 있는 모듈라 형태로 설계돼 UAM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예지 정비 정확도는 98%, 고장 판단 정확도는 99.8%에 달한다. 특히 비접촉식 기술과 AI 기반의 판단 기술 도입으로 제조에서는 연간 32만 시간, 운용에서는 연간 14만 시간 절감 효과를 보였다. 주식회사 위플로는 미래항공모빌리티를 선도하기 위해 기체사, MRO, 포트사와의 점검 기술 개발과 인증 획득을 위한 PoC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표준화 및 상용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주식회사 위플로는 확보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지 정비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글로벌 항공 안전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나눔비타민 김하연 대표

아이스링크(주) 김형규 대표

주식회사 위플로 김의정 대표



글. 박지현

중고의 반란, 중고 시장의 매력

'낡은 것', '버려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중고 물품이 이제 투자 자산이자 패션, 취향,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되팔 수 있는가'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 기준이 됐다. 단순한 중고 거래를 넘어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끄는 조용한 반란이 된 것. 국내외 리세일 시장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매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Profile. 박지현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문화트렌드 2025> 공저

RESALE

RECOMMERCE



“당근이세요?” 집 앞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동네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를 익숙한 일상으로 만들었다. Z세대는 물론 40~50대 부모 세대까지, ‘당근’은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예전엔 누군가 중고 제품을 샀다고 하면 “형편이 안 좋나?”라는 편견이 따르곤 했지만 이제는 “그걸 그렇게 싸게 구했어?”라는 부러움이 먼저 나온다.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핸드백, 빈티지 오디오까지. 리세일은 절약을 넘어 취향, 가치, 실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비로 자리 잡으면서 ‘힙한 소비’의 상징이자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 수단이 됐다.

리세일로 통하는 요즘 소비

리세일(Resale) 혹은 리커머스(Recommerce)라고 불리는 이 시장의 역사는 길다. 중고품 매장의 원조 격인 구세군 매장에서부터 1990년대 말 등장한 이베이까지, 사용하던 물건을 다시 유통하는 문화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국내에서는 2003년 개설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가 중고 거래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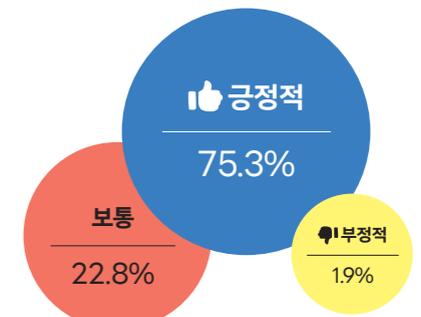
중화를 이끌며 현재는 1,95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초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5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인기 드라마 <썩속 속았수다>에서는 중고나라에서 분청사기를 거래하려는 사기꾼을 잡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글로벌 중고 패션 시장을 2025년부터 3년간 연평균 48.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반 패션 시장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는 2027년 국내 중고 의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24.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제품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순환 소비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선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리세일은 이제 ‘절약’이 아닌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물건을 현금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실속형 소비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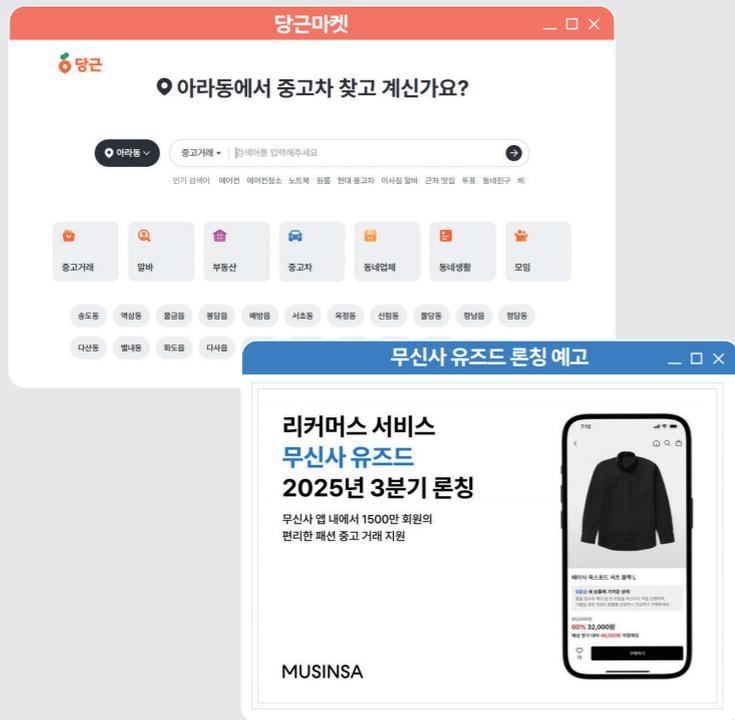
중고 플랫폼에서 주로 구매하는 것은?

잡화	45.9%
의류	35.4%
도서	35.4%
컴퓨터 및 관련 기기	24.2%
가전기기	23.9%
기타	

중고 거래에 대한 인식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기술 발전은 이러한 리세일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기반 중고 거래는 사기, 허위 상품, 정품 여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과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장벽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검색 이력과 구매 성향을 분석해 선호도 높은 상품을 정확하게 매칭해주고 에스ক্র 기반의 안전 결제 시스템은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품 상태 검수, 정품 인증, 실시간 상담, 픽업·배송 대행까지 제공하는 전문 리세일 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경험하게 됐다.

소비 트렌드 리세일에 흐름 탄 브랜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브랜드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명품 브랜드들은 리세일 시장을 브랜드 관리와 수익 확대의 전략적 채널로 인

식하고 접근하고 있다. 롤렉스는 2022년 말부터 '정품 인증 서비스(CPO, Certified Pre-Owned)'를 도입해 리세일 과정에서의 가품 논란을 차단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 체계를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 까르띠에와 IWC, 몽블랑을 보유한 리치몬드 그룹은 중고 시계 전문 플랫폼 '워치파인더'를 인수해 자체 유통망을 구축했고, 버버리와 구찌는 미국의 '더리얼리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세일 시장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보호를 넘어 리세일 시장에서의 수익 확보와 고객 생애주기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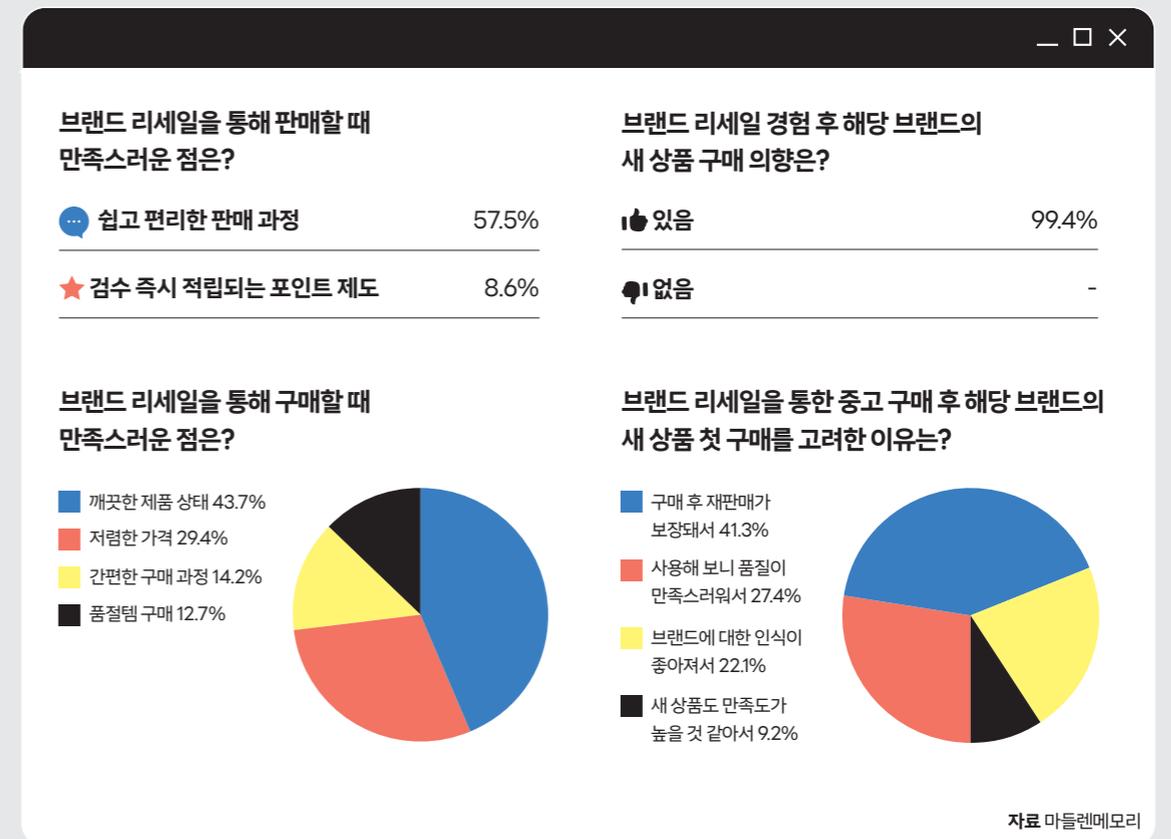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국내 패션업계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신사는 기존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중고 거래 플랫폼 '무신사 유즈드(MUSINSA USED)'를 2025년 하반기 정식 론칭할 예정이며 LF는 자사 물 기반 리세일 마켓을 준비 중이다. 코오롱FnC는 이미 'OLO 릴레이 마켓'을 통해 브랜드 전용 리세일 생태계를 조성하며 순환형 플랫

폼을 구축했다. 기존 신상품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리세일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브랜드 충성도, 고객 경험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 패션 유통의 확대는 패션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패션 산업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물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고질적 과제다. 중고 유통은 자원 순환 구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탄소 저감 효과를 통해 ESG 실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고 소비는 더 이상 '아껴 쓰는'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철학을 드러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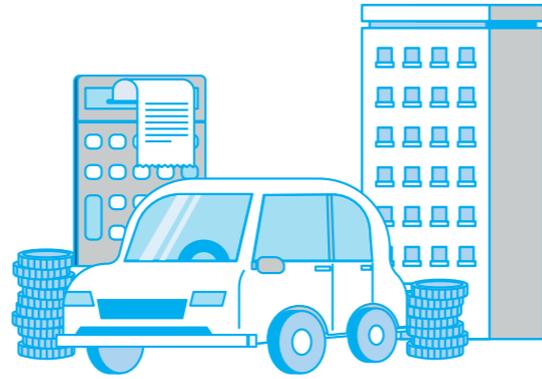
하나의 정체성 소비로 자리 잡았고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확산 속에서 브랜드와 소비자가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접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리세일 마케팅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문화와 기술, 경제와 윤리가 만나는 새로운 소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브랜드 역시 소비자와 함께 '스토리 있는 소비'를 설계하는 공동 창작자로 진화하고 있다. 요컨대 리세일은 이제 틈새시장을 넘어서 지속가능성과 감성, 기술이 결합된 유통 전략으로 주류 산업에 안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빠르게, 더 깊이 소비 문화와 유통 전략을 재편한다. 중고라고 낡았다고 보지 않는 시대, 이제 '가치'와 '스토리'를 담은 상품만이 살아남는다. 당신은 어떤 가치를 사고파는가? 📱



법인가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어떻게 처리하나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한다. 이에 세법은 그동안 이의 구입비는 물론이고 운행에 들어간 비용들을 제한 없이 인정해줬다. 하지만 차량의 특성상 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 다양한 세법상 규제가 도입됐다. 법인가기업이 알아야 할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상 규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자.



“중전에는 각 회사가 보유한 승용차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운행비 등을 무조건 인정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줄고 그에 따라 법인세도 준다. 이에 세법은 사적 사용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제한하고자 ‘법인 승용차에 대한 3대 규제’를 통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거	현재
1. 차량구입비는 5년 내외에서 감가상각했다.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이고 5년간 균등 상각하면 연간 1,000만 원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었다.	1. 회사가 차량운행비를 장부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량운행일지 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유류비나 수리비 등은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제한 없이 처리했다.	2. 8,000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면 연두색 번호판 을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의 규제 대상은 2024년 이후에 법인이 취득(중고차 포함)한 승용차에 한한다.
3. 차량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3. 법인가기업이 보유한 규제 대상의 승용차는 모두 업무전용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제 역시 임직원의 가족 등이 사적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법인가기업 업무용 승용차 세무관리법

- 1 규제 대상 차량의 범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
 규제 대상 차량은 법인 소유의 승용차나 리스·렌탈 회사로부터 임차한 승용차가 그 대상이나 1,000cc 이하의 경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규제에서 제외한다. 한편 임직원의 차량을 회사가 임차한 때도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을 갖추면 된다.
- 2 고가의 차량은 다양한 규제에 유의해야 한다.**
 2024년 이후에 취득한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많이 하고 싶다면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허위 작성은 금물이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면 세무조사 등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3 차량 대수에 제한은 없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임대업 법인은 500만 원)까지, 이를 작성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때 대수 제한은 없다. 따라서 법인이 승용차를 10대 넘게 운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단, 법인 차량은 무조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리스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4 임직원 차량은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임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때에는 개인과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한편 임차한 차량에서 발생한 운행비(감가상각비는 제외)는 법인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다.

개인가기업과 법인가기업의 승용차 관련 규제 내용 비교

구분	개인가기업	법인가기업
①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	모든 법인
② 운행비 규제	- 운행일지 작성: 업무사용에 따른 금액 - 운행일지 미작성: 1,500만 원	- 운행일지 작성: 업무사용에 따른 금액 - 운행일지 미작성: 1,500만 원 (단, 임대법인 500만 원)
③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없음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부착 의무(불이행 시 전액 손금불산입)
④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불이행 시 필요경비 불산입 차등적용)	의무(불이행 시 전액 손금불산입)
⑤ 운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1%)	2022년부터 적용(규제 대상 차량에 한함)	2022년부터 적용(규제 대상 차량에 한함)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제75회 희망중소기업포럼의 포문을 열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제75회 희망중소기업포럼 개최 ‘트럼프 2기 중소기업 대응 방안’ 주제로 논의

‘트럼프 2기,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5회 희망중소기업포럼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개막에 따라 보호무역 강화,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제75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는 중소기업 CEO, 정부 관계자, 학계 교수 등 약 250명이 모여 환율·무역·AI·에너지 등 주요 정책 변화를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위기 아닌 기회로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즉 제2기 행정부로 재취임했다. 트럼프의 재취임은 단순히 ‘미국 지도자 교체’의 시선으로만 볼 수 없다.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을 두고 국제 정치와 경제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같은 국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중소기업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지난 4월 1일, IBK기업은행은 한국경영학회,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트럼프 2기,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왼쪽부터) 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김기배(주)대현철강 대표이사가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했다.

제75회 희망중소기업포럼

트럼프2기,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일시: 2025년 4월 1일 (화) 장소: 서울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 1층 주최: 한국경영학회, 매일경제신문사, IBK기업은행

주제로 제75회 희망중소기업 포럼을 개최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현실은 수치보다 훨씬 냉혹하다”라며 “IBK기업은행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환영사에서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는 “트럼프 2기 출범을 포함해 한국 경제가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오늘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은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역·에너지·공급망·기후변화·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기존 질서를 크게 뒤흔

들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뉴노멀’로 받아들여 정부와 기업, 민간이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대비책 진단하다

이날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박종훈 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 새로운 기회로 ▲관세정책의 나비효과 ▲인플레이션의 시작 ▲중금리 시대의 개막, 트럼프가 전쟁 줄일까? ▲트럼프 2.0, 가속화될 AI 혁명 ▲에너지 혁명이 바꿀 미래를 주제로 세세히 강연했다.

박종훈 소장은 “트럼프 1기 때는 무역적자 해소가 목표였지만 2기에서는 감세에 따른 세수 확보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환율 절하와 고관세 조치가 맞물리면 중소기업은 관세와

환율 같은 이중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정책을 실시한 결과 2.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이제 돈을 푼 데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시점을 맞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돈이 대량으로 풀리고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CEO들에게 “기존 혁신 생태계를 재조성하고, 핵심 전략 사업에 투자를 강화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소장은 군수산업 및 방위산업에 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군비 증강 시대, 소비 위축 위험이 커졌다는 점 때문이다. “불황의 늪에 빠진 중국은 2027년이 가장 위험할 것이며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증거로 식량 확보와 에너지 개발



주제 발표에 나선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올인”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역전 전략으로 AI와 로봇틱스의 결합을 언급했다.

이같이 방위산업에서도 AI가 빠지지 않는 가운데 박종훈 소장은 트럼프 2.0 시대는 가속화될 AI 혁명이라며 AI의 미래는 소셜미디어와 다르다고 전했다. 앞으로 2차 AI 전쟁의 승부처로 데이터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가운데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송전망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데이터센터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규모 전력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복합적인 대외 리스크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을 위해 유동성 공급, 판로 개척 지원, 경영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해외 금융 지원망을 확충했다. 



환영사 이후 주제 발표를 경청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지금 세계는:



@shutterstock

캐나다, 국방비 지출 GDP의 2%로 늘려



캐나다가 국방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국방 및 안보 전략 발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로 높이겠다는 국방 지출 목표를 이번 회계 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중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를 벗어나 자체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방비 증액 발표에 따라 캐나다는 국방비 지출 비중 목표 달성 시기를 기존 계획 대비 5년이나 앞당기게 됐다.

일본, 외국인 관광객 면세 폐지 검토



@clipartkorea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국제관광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세 면세 제도를 악용해 일본 내에서 재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적지 않고 소비가 대도시권에 집중돼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6년 11월부터 면세 제도를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 실제 반출한 물품에 한해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미국, “런던 금융 허브에 中대사관 신축 불허해야”



미국이 런던의 금융 중심지에 중국대사관 신축 허용 금지를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민감한 통신망에 중국이 접근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왕립조폐국(Royal Mint Court) 부지를 2018년 매입해 주영 중국대사관을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부지는 런던 중심가와 금융 밀집 지구 사이에 있고 핵심 데이터 센터 3개와도 인접해 있다.



@shutterstock

중국, 美에 6개월 한정 희토류 수출 허가



@shutterstock

지난 6월 12일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허가 기간은 6개월로 한정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때를 대비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 산업용 로봇 등 주요 부품에 사용되며 수출 통제 이후 전 세계 자동차와 항공우주, 반도체 업계 공급망이 혼란에 직면한 상태다.



20%

금(金)이 유로를 제치고 세계 2위 준비자산으로 등극했다. 러우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하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중앙은행(ECB)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기준 금이 전 세계 중앙은행 공식 보유 자산 비중 20%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유로화는 16%, 달러는 46%였다. 금 가격이 최근 급격히 오른 것이 전 세계 외환보유고들이 금 비중을 늘린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한 해에만 30% 상승했다



69.77 달러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렬 위기가 중동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미국 시장에서 8월 인도분이 전장 대비 2.90달러(4.34%) 뚝 배럴당 69.77달러로 치솟았다. 미국은 중동에서 비필수 인력의 철수를 공식화했고, 이란은 미군의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무역전쟁 등으로 가격이 떨어지던 유가가 상승한 것은 중동의 전쟁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1,466조 엔

일본 토목학회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하면 20여 년간 1,466조 엔(약 1경3,847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초래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 피해액은 작년 일본 국내총생산 609조 엔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난카이 대지진은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0억 파운드

영국 노동당 정부가 향후 수년간 공공의료와 주택 공급, 국방 예산을 늘리고 망명 신청자 숙박 지원과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의 정부 지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 예산은 향후 3년간 연 3%씩 늘어난다. 이는 연 290억 파운드(약 53조8,000억 원) 증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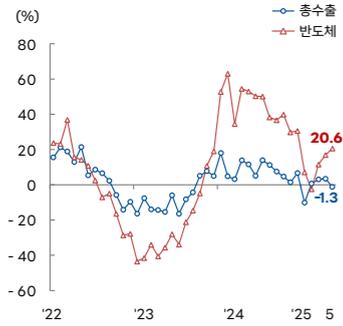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Korea

Exchange Rate

Small Business Trends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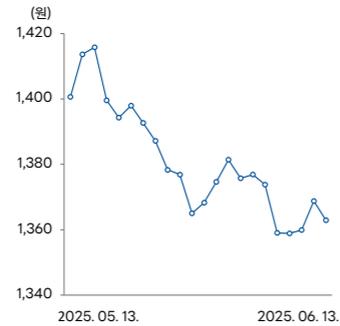
5월 수출,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5월 수출(572억3,000만 달러)은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주요 시장인 중국(-8.4%)과 미국(-8.1%)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고 10대 주력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도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20.6%)은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6월 1~10일의 수출(5.4%)은 다시 증가 전환했다.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4월 산업생산은 제조업(-0.9%, 전월 대비)과 서비스업(-0.1%)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내수 부문은 소매판매가 0.9% 감소했고 설비투자(-0.4%)와 건설투자(-0.7%)도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우리 경제는 내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달러/원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최근 환율은 1,350원대까지 하락 (2025년 5월 14일 1,413.7원 → 5월 27일 1,365원 → 6월 13일 1,362.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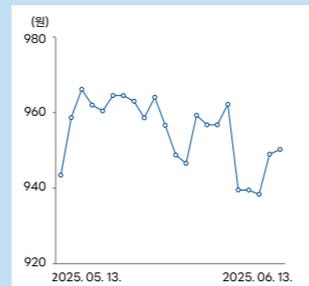
미·중 관세합의 발표에 소폭 상승한 달러/원 환율은 5월 14일 한미 환율 협상 소식에 1,400원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美 신용등급 강등, 감세안 통과 등으로 탈달러 흐름이 강화되면서 1,365원까지 급락했다. 5월 말 한은 금통위에서 25bp 금리인하가 결정되면서 환율은 1,381원까지 반등했지만 美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韓 신정부 출범에 따른 원화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1,350원대까지 하락했다. 향후 이스라엘-이란 전쟁 확대 여부가 환율 추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5년 3분기 말 환율 전망은 1,384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5년 3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384원으로 조사됐다. '1,390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6개사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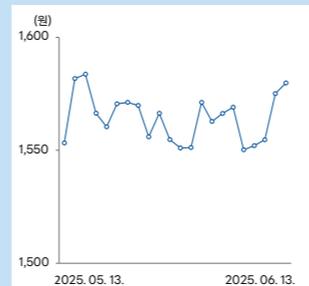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5.5.23.~2025.6.13.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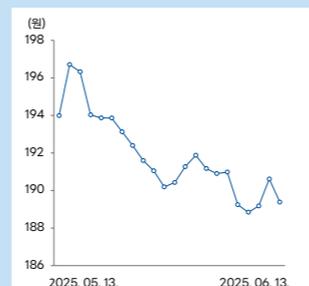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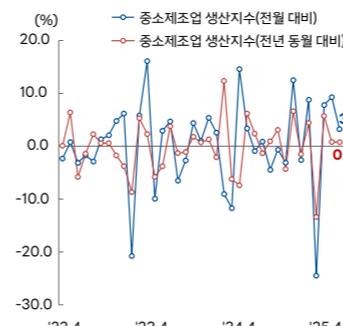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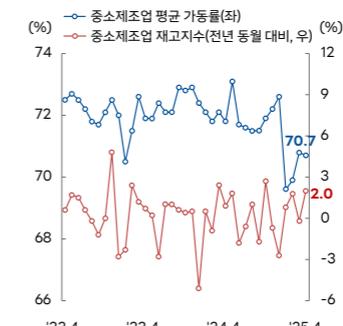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5년 4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기계장비(2.6%), 석유정제(8.9%), 비금속광물(5.4%) 등에서 증가했으며 자동차(-4.2%), 석유정제(-9.3%), 금속가공(-2.9%)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21.8%), 기타운송장비(29.5%), 의약품(19.5%) 등에서 증가했으나 1차금속(-3.4%), 비금속광물(-6.9%), 석유정제(-2.9%)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감소

2025년 4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70.7%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0.3%포인트 감소한 67.0%, 중기업(50~299인)은 0.2%포인트 증가한 74.8%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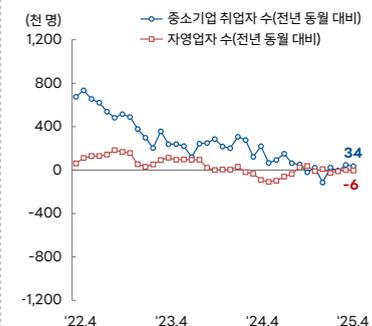
* 2023년 3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25년 4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2.0%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자동차(2.1%), 석유정제(4.2%), 식품(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3.5%), 1차금속(-1.6%), 전자부품(-6.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5년 4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7만3,000명이 감소한 반면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10만7,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5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5년 4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이 감소해 561만 5,000명을 기록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인간은 혼자 고립돼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어릴 때부터 늘 타인의 평가를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직장에서는 상사의 고가 점수에 의존하며, 가족을 이루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쇼펜하우어가 예시로 든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죽기 전날 면도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심리. 사형장에서 처형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눈에는 멋진 모습으로 각인되고 싶은 마음이 '허영심'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들여보겠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조의금은 얼마나 회수될까,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죽은 '나'에 관해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 관한 걱정에 사로잡힌다. 시한부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시 태어나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말한다.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의 욕망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걱정에 평생을 조바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타인에게 더 잘 보이려는 바탕에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자존감이 숨어 있다. 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뒷면에는 자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처럼 인간에게는 명성과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명예와 명성은 다르다. 명예는 높은 관직이나 직업을 가지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성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올려봐야 하는 희귀한 것이다. CEO로 성공하면 저절로 명예가 따르지만 명성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명예는 살아서 누리지만 명성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명예나 명성은 둘 다 타인의 평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쉽게 얻을 수 없다.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출세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죽은 후에도 나의 명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확인할 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타인의 좋은 소리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만의 진정한 존재 의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별 관심 없는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 출세와 성공, 인지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노예와 같은 비굴함을 느끼게 한다. 중요한 것은 아부를 통해 얻는 나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내 배의 선장은 자신이라는 점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가져야 한다. 

Profile. 강용수

-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
-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니체 작품의 재구성> 등

@shutterstock

‘사용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문 노무사가
채택된 사연을 상담해드립니다.
✉ dnc_sj05@naver.com



✉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 부장입니다. 최근에 채용한 신입 사원 문제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노무 상담을 신청합니다. 인사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했지만 이번처럼 난감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경력직으로 A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면접 당시 A 씨는 적극적인 태도와 뛰어난 역량을 보여 저희 모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3개월의 사용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A 씨는 저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어 오히려 팀 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현재 사용기간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A 씨의 태도나 업무 능력에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이라도 A 씨와의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불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사용기간을 통해 신중하게 인력을 검증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니 과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라도 부당해고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편이라 이러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기간의 해고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기준에 대해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올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New message

— L X

From 윤형석 노무사
Subject Re: 노무사님, 사용기간 중 해고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보내주신 사안을 살펴보건대 사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 등의 사유로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A 직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의 타당성이 좌우됩니다. 먼저 사용(試用)이란 본 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고용 기간 내의 근무 상황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고용을 의미합니다. 수습(修習)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본 채용에 대한 유보 없이) 일정 기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당해 회사는 A 직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한 취지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할 것으로 회사는 일정 기간을 두고 A 직원에 대한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은 사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대법99두10889)라 보면서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해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사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그 사유가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 직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선 직무·업무 능력 등에 대한 근무평정표 등 ‘객관적·정량적·계량적인 근거자료 확보 및 정성적·주관적 평가’ 또한 선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근로자에 대한 평가임을 감안해 사용 근로자의 비교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이 아닌 같은 사용 근로자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2002다62432)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바람직합니다(대법2002다62432). 또한 평정등급 및 평정표에 대한 피드백 기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대법2002다62432) 정성적·주관적 지표(예컨대 인품·성실성·근무태도·적극성 등 자질)라 할지라도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종합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취지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 직원의 △작은 지시 불이행 △팀원들과의 소통 부재 △팀 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행위 △개선 의지가 없는 태도 등에 비춰 봤을 때 회사의 본 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전술한 인사 평가 과정을 거쳐 본 채용 거절을 진행한다면 부당한 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Reply Forward Cancel

글. 안병택

여름 운동, 준비가 반이다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 몸은 꾸준한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 환경까지 더해져 예상치 못한 근육 경직과 관절 통증이 쉽게 나타난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 전후의 '준비'. 무더위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이어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신체 활동이 줄어든다. 날씨도 더운데 무슨 운동이나 싶다. 하지만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것이다. 날이 더워서 몸이 나른하고 풀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근육과 관절이 더 부드럽고 유연하지 않다. 오히려 에어컨, 선풍기로 인해 근수축이 일어나 근육, 관절이 뻣뻣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관절을 보호하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오히려 준비운동 없이 의욕이 앞서면 운동을 하다가 부상과 관절 통증으로 더 고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7월호에서 준비한 운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했다. 준비운동은 본 운동에 앞서 몸을 풀고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위해 흔히 스트레칭과 체조를 한다. 이때 스트레칭과 체조를 정적으로 하기보다 동적인 형태로 해야 한다. 서서 팔, 다리를 가만히 늘리는 걸 정적 스트레칭(Static Stretching)이라 부른다. 동적 스트레칭(Dynamic Stretching)은 관절을 움직이는 형태로 이완한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은 경기 전 몸을 풀 때 앞으로 가볍게 달리며 다리를 위쪽이나 옆쪽으로 올리며 이동한다. 여러 연구에서도 스포츠 경기 전에 하는 과도한 정적 스트레

칭은 근 긴장을 일으켜 경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가볍게 뛰거나 몸을 움직이며 준비운동하는 게 좋다.

준비운동에도 원칙이 있다. 첫째, 정적 스트레칭을 하되 끝은 동적 스트레칭으로 마친다. 둘째, 스포츠 종목과 최대한 비슷한 동작으로 몸을 푼다. 셋째,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최소 10분 이상 실시한다. 넷째,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준비운동은 적당히 해야 본 운동에 도움이 된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서 탈수 등 본 운동에 변수를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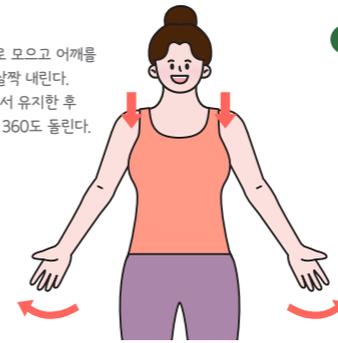
정리운동 또한 중요하다. 운동이 끝나면 힘들고 쉬고 싶어서 정리운동을 건너뛰기도 한다. 정리운동은 본 운동으로 생긴 비대칭 동작과 특정 부위의 조직 과활성화를 줄여준다. 정리운동은 가볍게 걷거나 정적 스트레칭 형태로 한다. 폼롤러 같은 이완하는 도구가 있다면 직접 근육을 잘 푸는 게 좋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까지 한다면 손상과 통증 위험은 더 줄어든다. 여름 스포츠는 땀 흘리기엔 신경 쓰고 물을 적절하게 마시며 건강하게 운동하자. 

Profile. 안병택

- 바디안 대표
-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매일통증> <4050 생활습관 리셋> 등

건강한 여름을 위한 준비 스트레칭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 어깨를 아래로 살짝 내린다. 그 상태에서 유지한 후 어깨를 뒤로 360도 돌린다.



1 어깨 내리고 팔 바깥으로 회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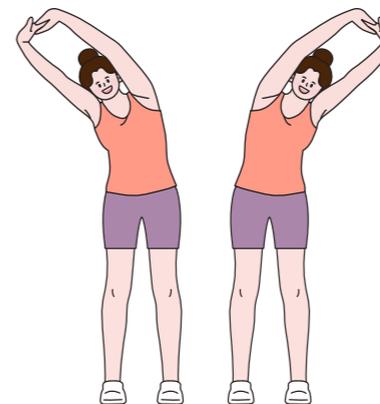
날개뼈를 재정렬하고 어깨 관절을 이완하는 동적 스트레칭 방법이다. 서서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 위치한다. 먼저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 어깨를 아래로 살짝 내린다. 그 상태에서 유지한 후 어깨를 뒤로 360도 돌린다. 30회 반복한다.

2 소흉근 누르며 팔 뒤로 돌리기

가슴 근육을 풀면서 어깨 관절 가동범위를 늘리는 방법이다. 오른쪽 검지, 중지, 약지를 왼쪽 가슴 근육에 올려놓는다. 이때 가장 아픈 부위를 찾는다. 가슴 근육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팔을 뒤로 360도 회전한다. 15회 반복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오른쪽 검지, 중지, 약지를 왼쪽 가슴 근육에 올려놓는다. 가장 아픈 부위를 찾는다. 가슴 근육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팔을 뒤로 360도 회전한다.



3 손가락 끼고 만세 후 옆구리 늘리기

요방형근, 늑간근을 늘려서 허리와 골반 균형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팔을 들어 손가락 끼는다. 왼쪽으로 천천히 몸통을 구부려 옆구리를 2초간 유지한다. 10회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스트레칭 시 반동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한다.



「IBK ESG 정밀진단 시스템」이란?

중소기업의 ESG경영실천 지원을 위해 기업의 ESG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ESG진단평가 및 탄소배출량 측정·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웹주소 esg.ibk.co.kr

컨설팅 제공 내용 및 대상

분야	ESG정밀진단 컨설팅 [중소기업 ESG경영 수준 진단]	온실가스 인벤토리 컨설팅 [탄소배출량 측정 및 관리]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ESG 규제화 및 원청사(대기업)의 다양한 ESG 경영 요구에 적시 대응을 위한 ESG 경영수준 진단평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요구받고 어려워하는 탄소배출량 측정 및 기업별 최적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컨설팅
추천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협력사와 수출 중소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게 ESG수준 및 탄소배출량 관리를 요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구체적 실적(증빙) 제출 요구 ESG 경영체계 구축 및 대응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컨설팅 주요 특징

분야	구분	
	주요 특성	내용
ESG 정밀진단 컨설팅	지표 차별화	규제지표, 일반지표, 금융지표로 구성
	업종별 특성	25개 평가용 업종구분 및 업종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ESG 규제 Risk 확인	ESG 평가 종합등급, 점수 및 규제대응 Risk 노출도 등급 제시
	개선이행방안 제공	기업에 필요한 차별화된 To-Be개선이행방안 제공
온실가스 인벤토리 컨설팅	측정 범위	기업의 배출량과 공급망 내 협력사 탄소배출량 측정 가능
	데이터추적	기업(전사)-부문(사업장)-제품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추적분석
	감축목표 수립	시나리오 기반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수립 컨설팅 제공

컨설팅 진행 방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334호(2025.05.16) 유효기간(2026.05.13)
컨설팅 신청을 원하시는 기업은 거래 중인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당당하게, 상속은 단단하게

당당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
끝까지 당당할 수 있도록

계약, 설계,
관리, 상속은 물론
기부와 사회 환원까지

당신의 뜻을,
단단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IBK기업은행에서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055호(2025.05.19.~2026.05.1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339호(2025.05.16.) 유효기간(2026.05.12.)
※ 자세한 문의를 가맹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 서비스의 기본계약보수(선취)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후취)는 신탁원본의 0.2-0.8%입니다.